

# “시로 흑자 전환 돕는다... 내년 美시장 도전”

## 안익진 몰로코 대표 인터뷰

몸값 2.6조원 애드테크 유니콘 빅데이터 분석해 맞춤형 광고 작년 매출 2억씩... 12분기 흑자

“머신러닝으로 수익성 개선 지원 비즈니스 전반으로 사업 확대”



“광고를 넘어 비즈니스 솔루션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안익진 몰로코 대표(사진)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레드우드 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모든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고객사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경영을 컨설팅해주는 솔루션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신러닝 기업의 변신 몰로코는 머신러닝 기반 솔루션 기업이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이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와 관련한 정보들을 결합해 관련성이 높은 광고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실리콘밸리 한국인 창업 1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등의 수석이거 붙는 이 회사는 올해 2월 스트리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겨냥한 수익 솔루션을 내놨다. 머신러닝 기술로 TV 광고보다 더 광범위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대표는 “2년여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광고 추천의 정확

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며 “최근 인도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업체가 몰로코의 광고 솔루션을 도입해 하루 최대 3억 명에게 광고를 송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2021년엔 e커머스 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을 지원하는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RMP)을 내놨다. 리테일 미디어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를 말한다. 국내 대형 홈쇼핑 업체와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이 몰로코의 고객사다.

안 대표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업체로 알려졌지만 광고 수익이 40조원에 달한다”며 “몰로코 솔루션을 활용하면 아마존처럼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추천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에 허덕이던 솔루션 도입 첫해에 100억원의 이익을 낸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10년 만에 몸값 20억달러로” 몰로코는 꾸준하게 사업에 나선 결과 1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연간 2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몸값’도 치솟았다.

지난달 미국 피델리티와 싱가포르 글로벌 투자사인 EDBI 등이 2차 주

식 공모를 통해 몰로코 주주로 참여했다. 이번 거래 과정에서 몰로코 기업가치는 20억달러(약 2조6400억원) 이상으로 평가받았다. 시리시C 투자가 이뤄진 2021년(15억달러)보다 몸값이 30% 넘게 뛰었다. 사업이 안정되는 내년께엔 나스닥시장 상장도 도전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구글 재직 중 유튜브 광고에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한 뒤 사업의 가능성을 봤다”며 “이후 창업의 길로 들어서서 광고 수익 극대화 부문을 집요하게 파고들 결과 회사가 10년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2004년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2006년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석사, 2008년 UC샌디에이고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유튜브와 구글 본사에서 십여년간 근무하며 유튜브에 머신러닝 기반 광고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한 안 대표는 2013년 몰로코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10개 지사를 두고 있다. 전체 직원은 600여 명이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 ‘AI능력평가’ AICE 15일 응시 마감

## 국민 인공지능 시험 AICE는?

등급	대상	코딩
프로페셔널 (PROFESSIONAL)	AI-SW 개발자 전공자	파이선
어소시에이트 (ASSOCIATE)	데이터 기획·분석 실무자 준전공	파이선
베이직 (BASIC)	관리자 비전공자	NO코딩
주니어 (JUNIOR)	중·고교생 중·고등교사	NO코딩
퓨처 (FUTURE)	초등학생 초등교사	블록코딩

## 21~22일 제3회 정기시험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신개념 테스트인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제3회 정기시험 접수가 곧 마감된다.

11일 AICE 사무국에 따르면 오는 21~22일 열리는 AICE 제3회 정기시험 접수는 15일까지 한다.

AICE는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개발해 운영하는 시험으로 응시자의 AI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 ‘전 국민의 AI 역량 강화’가 목표다. 표준화된 테스트가 없어 AI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교육기관의 요구를 반영해 시험을 설계했다.

비전공자를 타겟으로 하는 베이직, 데이터 기획·분석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소시에이트, 전문가용인 프로페셔널,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퓨처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정기시험에서는 베이직과 어소시에이트 시험이 치러진다.

15일 유튜브를 통해 무료 특강이 이뤄진다. KT 현직 개발자로부터 AI 이론과 실습 사례를 들을 수 있다. 강의는 AICE 시험 신청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10월과 12월에도 정기시험이 치러진다. 베이직과 어소시에이트는 물론 프로페셔널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 확 낮아진 5G 28GHz 주파수 가격

정부, 경매시작價 740억 산정 의무기저국도 6000대로 축소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5G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28GHz 주파수 할당 방식과 조건 등을 공개했다. 이 주파수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지난 5월 반납했던 대역이다. 정부는 28GHz 주파수를 전국 단위로 할당할 때 최저경쟁가격을 740억원으로 산정했다. 2018년 통신 3사에 제시한 최저경쟁가격(2072억원)과 비교하면 36% 선이다.

다른 조건도 완화했다.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저국 수를 전국 단위

사업 3년 차(2026년) 기준 6000대로 제시했다. 통신 3사가 이 주파수를 사들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기저국 수(1만5000대)의 40% 수준이다. 주파수 할당 전에 내야 하는 첫 납부금도 전체 납부금의 25%에서 10% 규모로 줄었다. 이후 1년 차에 내는 납부금이 점차 증가해 마지막에 30%를 내는 구조다. 신규 사업자는 전국권과 지역권 가운데 원하는 단위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확정해 공고한 뒤 4분기에 할당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 이란 반응이 나온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 시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망 투자까지 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며 “28GHz에 특화된 사업모델도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BMW 안경’ 끼면 실시간 내비 보인다 BMW 모터라드는 11일 모터사이클을 주행 시 착용하는 스마트글라스 ‘BMW 모터라드 커넥티드라이드 스마트글라스’를 최초 공개했다. 스마트글라스가 내비게이션과 속도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제품이다. BMW 제공

## NHN커머스, 유럽공략 가속 伊 펌프 유통사 아이코닉 인수

NHN의 온라인쇼핑회사인NHN커머스는 이탈리아 펌프 패션 유통 기업 아이코닉 지분 77.8%를 인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아이코닉은 1934년 설립된 대가패션 브랜드 250여 개를 유통하는 연매출 1000억원 규모 기업이다. 유

통 국가는 100여 개국에 달한다. 이번 인수로 NHN커머스는 유럽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회사는 아이코닉 유통망을 활용하면 명품 패션 분야에서 해외 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코닉과 협업해 기존에 협력 관계를 구축해놓은 브랜드들을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유통하고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주현 기자

# 가상현실서 간호기술 자유롭게 실습

## 옴즈 중기

## 교육 돕는 그라디텍 ‘스마트너싱’

“스마트너싱(Smart Nursing-사진)”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밤에도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습니다.”

동작 인식 가상현실(VR) 기술 기반 스타트업 그라디텍의 옥지원 대표는 자사 제품인 스마트너싱의 장점을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너싱은 VR 실습 교육 콘텐츠다. 학습자가 손을 움직이며 VR로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게 설계됐다. 간호학과 학생이 교수가 없는 밤늦은 시간에도 혼자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동명대 간호학과 교수인 옥 대표는 “자율실습이 가능하게끔 인공지능(AI) 조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



각을 현실로 옮겼다”고 개발 배경을 소개했다. 스마트너싱에는 20가지 프로그램이 장착됐다. 주사 놓는 방법부터 소변을 못 보는 환자에게 소변줄을 꽂아주는 간호행위까지 구현하는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간호 실습의 90%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옥 대표는 “간호 분야 콘텐츠로 출발해 응급처치,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에 응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 보상계획열람공고

2023. 7. 12. 에스케이오션플랜트 주식회사

본회(주)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이하 “회사”라 함)는 2023년 7월 12일 현재 회사의 보상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오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본회 홈페이지(www.sko.com)를 통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공시사항의 개요

가. 시 요 청 결 - 보상 계획 열람을 위한 공시사항

나. 시 요 청 결 - 보상 계획 열람을 위한 공시사항

다. 시 요 청 결 - 보상 계획 열람을 위한 공시사항

2. 보상 계획 열람의 대상

가. 보상 계획 열람 대상

나. 보상 계획 열람 대상

3. 보상 계획 열람의 방법

가. 보상 계획 열람 방법

나. 보상 계획 열람 방법

4. 보상 계획 열람의 유의사항

가. 보상 계획 열람 유의사항

나. 보상 계획 열람 유의사항

5.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

나. 기타사항

### 부동산 철세 컨설팅 및 세무조사 대응전략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평가권해, 철세는 권해이 아닌 철세입니다. 컨설팅에도 특이한 철세는 컨설팅과 특이한 컨설팅이 있습니다. 철세에 유망한 철세는 컨설팅과 특이한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큰 규모의 철세는 철세입니다.

부동산 평가권해, 철세는 권해이 아닌 철세입니다. 컨설팅에도 특이한 철세는 컨설팅과 특이한 컨설팅이 있습니다. 철세에 유망한 철세는 컨설팅과 특이한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큰 규모의 철세는 철세입니다.

교육일정: 2023년 7월 26일(수), 14:00 - 18:00

수강대상: 부동산 고객자산가, 고매매량 소유자, 부동산 관련 상속과 증여에 철세가 필요한 분, 정확한 철세 지식이 필요한 분

담당교수: 황병서 세무사(세무회계 필수)

교육장소: 한국경제신문 3층(서울 중구 청파로 463)

교육비: 350,000원 (VAT포함, 전문가 상담비용 할인가능·별도문의)

교육문의: 02)360-4045 김지민 과장 aca@hankyung.com

커리큘럼

- 부동산 철세(상위) (1시간) : 철세는 컨설팅, 특이한 철세
- 부동산 철세(중위) (1시간) : 철세는 컨설팅, 특이한 철세
- 철세-상속, 증여, 세무조사 사례(중위) (1시간) : 국세청과 세무조사

### 다니엘 핑크 후회의 재발견

KAIST 정재승 교수 추천 실패로부터 제도약하는 후회의 기술

“후회하는 삶은 왜 더 성공적일까?”

다니엘 핑크 후회의 재발견

다-개 핑크 지음 | 김명철 옮김 | 값 18,000원 | 한국경제신문 DANIEL H. PINK

다니엘 핑크 후회의 재발견

- 부동산 철세(상위) (1시간) : 철세는 컨설팅, 특이한 철세
- 부동산 철세(중위) (1시간) : 철세는 컨설팅, 특이한 철세
- 철세-상속, 증여, 세무조사 사례(중위) (1시간) : 국세청과 세무조사